

보성형 블루이코노미 날개달다... 해양사업 410억 추가 확보



회천 득량만~별교 여자만까지 이어지는 광역 해양 거점 건설

별교 태백산맥문학관~장도 1천억 대 통합 관광로드 개발 탄력

보성군은 △해양갯벌 생태 네트워크 구축 및 탐방로 조성사업(350억 원)과 2021년 여촌뉴딜300사업(60억 원)이 정부 예산 반영 추가가 확정돼 보성형 블루이코노미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 밝혔다.

특히, 이번 예산 확보로 회천 득량만에서 별교 여자만까지 이어지는 광역 해양 거점이 건설되고, 별교 태백산맥 문학관에서 장도까지 이어지는 1천억

원 대 별교권역 통합 관광로드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해양갯벌 생태 네트워크 조성사업은 보성군 별교읍 장암리 및 장도리 일원에 350억 원을 투입하여 해상 탐방로(3.5km), 해안 탐방로(6.6km)를 조성하고, 습지보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여자만 별교 갯벌의 생태학적인 우수성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보성군은 기존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430억 원을 확보해 회천면 일원에 국내 최대 인피니티풀, 최장 깊이의 스쿠버다이빙 시설을 갖춘 종합 해양레저센터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낙후된 여촌지역의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2019년, 2020년 여촌뉴딜300사업으로 각 2개소씩 35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12월 득량 청암항이 선정되어 추가로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보성군은 이번엔 추가로 확보한 해양관광사업 및 여촌뉴딜300사업을 통해 보성군 여촌지역의 관광자원이 활성화되고 농어가 소득 증대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단위사업을 통합해 광역 해양 관광 거점으로 키우고, 별교 권역의 자랑인 소설 태백산맥에서부터 갯벌, 국가중요어업유산 썰매, 꼬막 등 문화와 자연 모두를 섭렵할 수 있는 통합 관광 로드를 만들어 가장 별교다운 색깔을 지닌 관광 자원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여수시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

차별화된 중장기 섬 정책·2026여수세계제습박람회 성공 개최 마련

여수시는 최근 여수시 섬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한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권오봉 시장과 전문가 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용역을 맡은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김학모 원장은 섬의 특성과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이 살고 싶고, 국민이 가고 싶은 섬 조성을 위해 섬 지역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발전방향과 계획지표, 분야별·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여수시는 섬 현지조사와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섬이 보유한 다양한 생

태, 인문자원 등을 바탕으로 하드웨어적인 섬 개발이 아닌 생태, 사람 중심의 섬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섬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관광문화연구원 등으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제출받았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섬 발전 종합계획은 여수 섬에 대한 큰 프레임이 될 것"이라며, "섬이 개발되고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섬 주민이 소외되지 않고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 해결책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고흥군, 제17회 자원봉사자대회 기념식 개최

우수봉사자 10명·자원봉사 체험수기 공모 6명 등 격려



고흥군은 최근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송귀근군수, 송영현 군의회의장, 김영순 대회추진위원장, 자원봉사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고흥군 자원봉사자대회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하게 진행되었으며, 우수봉사자 10명과 자원봉사 체험수기 공모 우수자 6명 등 한 해 동안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고흥군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 제17회 자원봉사자대회는 기념식과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담가나누기 행사'로 김치2,500포기(1,004박스)

를 담가 취약계층에 나누는 참된 봉사자의날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행사계획을 변경하여 기념식만 우선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

김영순 추진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김장김치 담가나누기 행사를 할 수 없어 매우 아쉽지만, 전문업체에 김치를 위탁 생산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겠다"며 "따뜻하고 살맛나는 우리 고흥을 위해 내년에는 봉사활동을 더 많이 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격려사에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분 간호사처럼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양시, 농가에 농업용 유용미생물 7종 공급

작물생육용 4종·병해충방제용 3종 공급... 농가소득 증대 기여

광양시는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신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관내 농업인에게 공급한다.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은 2년간 17억 원(국비 8억5천)을 투입해 연간 250여톤 생산 규모로 신축(연구용 실험실 포함)되어 미생물의 순수분리부터 대량 배양까지 연구와 보급에 최적화했다.

시는 농업에 적용 가능한 △악취와 유해가스 제거, 착색과 당도 증가에 효과가 있는 광합성균 △유기물 분해와 작물생육 증진에 효과가 있는 고초균 △병원균 억제와 퇴비부숙 촉진, 토양



산도 교정에 효과가 있는 유산균 △최근 작물생육에 큰 효과가 있어 각광받고 있는 클로렐라 △미생물 농약으로서 효과가 있는 백강균과 BT·BV균 등 고기능성 미생물 7종을 선정해 공급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순천시, 2020 따순마을 큰잔치로 마을공동체 활동 공유

유튜브채널 생중계로 150개 마을공동체 참여

순천시는 최근 시민협력센터에서 2020년 마을공동체 활동을 공유하는 '2020 따순마을 큰잔치, 마을공동체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199개 단체 중 일부만 행사장에 참석토록 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유공자 표창, 따순마을학교 수료식, 마을활동 사례발표, 시장과의 토크 콘서트 등으로 진행했다.

마을 만들기, 아파트·대학로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마을활동가 6명과 마을공동체 2팀이 받았고, 따순마을학교 수료자 128명을 대표한 5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시장과의 토크콘서트에서는 허석 순천시장이 생각하는 따순마을은 무엇인지,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소 방법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호응을 얻었다.

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로는 조곡동 금강메트로빌 아파트에서 활동

해 온 금강애공동체 김혜진 대표가 봉화산 플로깅, 숲돌이 축구교실, 가족캠프 활동내용을 전달하고, 따순마을학교 우수 과제로 선정된 강명란 수료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마을 문제를 찾아내는 과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 활동을 발표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주민들과 하나되어 행복한 동네로 바꾸어 가는 일에 앞장 선 공동체 활동을 토대로 우리 도시가 호남 3대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2021년에도 따뜻한 순천을 만드는 데 함께 해달라"는 격



려의 말을 전했다.

한편, 순천시는 2006년부터 주민들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마을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따순마을 사업을 지속하여 시민들의 자치력을 높이고 마을활동가를 육성해 나갈다는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산구